

배포 2024. 7. 3.(수) 8:30

보도시점

(인터넷) 2024. 7. 3.(수) 회의 시작 시

(지면) 2024. 7. 3.(수) 회의 시작 시

##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관계부처 합동 「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」 최초 수립으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
- 「디지털 교육 규범」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원칙 제시
- 장애인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 보장을 위한 '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' 추진
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)는 7월 3일(수)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, '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', '디지털 교육 규범', '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'을 발표한다.

### <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>

「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」은 전체 국민의 약 13.6%\*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.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,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,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 이에,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 방안을 마련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\* 지능지수(IQ) 71~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의 13.59%가 해당

**첫째,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.**

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,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\*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한다.

또한,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**실태 조사**를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.

\* (대상) 초등학교 1·4학년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

※ 감지 : 주변인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인지하거나, 경계선지능을 의심하는 단계

발견 :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고위험군임을 파악하는 단계

## 둘째,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.

[영·유아기] 가족센터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·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. 특히,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\* 등 중앙정부,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.

\* 발달재활서비스,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

[학령기]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,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. 특히, **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\***를 활용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-교육청-지역사회가 함께 학습·심리·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.

\* (학교) **단위학교 내 '학생맞춤통합지원팀'**을 통한 조기발견·지원·관리 → (교육청) **교육청 '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'**에서 고위기 학생 집중 지원 → (지역) **학교 밖 전문기관**

아울러,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,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, 예비 교원,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,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.

[성인기]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**사회적 자립**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, 양질의 일 경험 제공\*을 추진한다.

\* 「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연구사업(2024)」 : 진로설계컨설팅, 직업 훈련 프로그램, 업무체험 기회 등 제공(서울시, 청년재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주관)

또한,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하여 **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**을 개설하고,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**사회관계망 형성\***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.

\* 경계선지능청년 대상 자조모임, 음악활동 소모임, 문화체험 등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 대인관계 형성, 정서적 지지 제공(잠재성장청년 당사자 채움 동아리 지원 사업, 청년재단)

**셋째,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,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**

경계선지능인에 대한 **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**을 위한 부처별 노력은 물론,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**유기적으로 연계**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, 지자체, 민간기관 등 **관계기관 간 협력\***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.

\*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대상 지역완결적 서비스 제공 추진(예시: 지자체-교육청-사회복지관-청소년상담복지센터-건강가정지원센터 등)

**<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(디지털 교육 규범) >**

「**디지털 교육 규범**」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,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**가치와 원칙**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**교육의 방향**을 제시하는 헌장이다.

본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「**디지털 권리장전**」과 **국제 사회**의 각종 선언,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**재구성**하여 수립되었다. 구체적으로,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**5개 핵심 가치**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**24개 세부 원칙**으로 구성되어 있다.

**< 「디지털 교육 규범」 핵심 가치 및 세부 내용 >**

핵심 가치	세부 내용
자유와 권리 보장	△인간의 잠재력 실현, △교수자 전문성 존중, △학습자 주도성 존중, △디지털 역량 함양, △전 생애 디지털 교육, △디지털 리터러시 교육
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	△디지털 접근 보장, △디지털 교육의 격차 완화, △디지털 교육 기술의 공공성 확보, △교육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
안전과 신뢰 확보	△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, △디지털 위험 예방, △연령에 맞는 기술 활용, △디지털 교육의 신뢰 확보, △프라이버시 보호, △안전한 학습데이터 활용
혁신 촉진	△교육자의 교육 혁신 역량 강화, △디지털 친화적 교육 제도, △디지털 교육 기술의 혁신, △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상생
인류 연대 강화	△교수자-학습자 간 연대 강화, △세계 시민 양성, △국가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, △보편적 규범 형성 촉진

교육부는 본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이를 위해, 올해 하반기에는 본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,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‘디지털 교육 연속(릴레이) 포럼’도 개최할 계획이다.

### <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>

‘장애인 개인예산제’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,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\*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\*\*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.

\* 활동지원급여 수급 장애인 86명 참여, 건강기능식품(25.3%), 보조기기(15.8%) 등에 사용하며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으로 선택권 확대 및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

\*\* 대전 동구서구, 부산 금정구, 대구 달성군, 경기 시흥시, 충남 예산군, 전남 해남군, 서울 강북구

2024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·선정\*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하였으며,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.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\*\*를 중심으로 추진되며,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%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·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 아울러, 작년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하여 주류·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·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.

\* 참여자 모집 결과, 432명 신청 → 장애유형,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선정(210명)

\*\*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·사회생활이 어려운 60~65세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(신체·가사활동, 아동보조)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제공

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,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.

- 【별첨】 1.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 
 2. 디지털 교육 규범  
 3.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

담당 부서 <총괄>	교육부	책임자	과장	나현주	(044-203-7261)
	사회정책총괄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김상덕	(044-203-7265)
<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>	교육부	책임자	과장	나현주	(044-203-7261)
	사회정책총괄담당관	담당자	서기관	이용욱	(044-203-7254)
<디지털 교육규범>	교육부	책임자	과장	송선진	(044-203-7046)
	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김효라	(044-203-7054)
<장애인 개인예산제>	보건복지부	책임자	과장	최경일	(044-202-3280)
	장애인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송영아	(044-202-328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